
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2.(금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공항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나웅진, 사무관 이중현, 주무관 이재만 • ☎ (044) 201-4328, 4329, 4351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5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5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...제한속도 80km 통과 민자고속도로 최초 도입...지정체 개선·사고예방 등 효과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, 2월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“다차로 하이패스”를 운영한다.

* 다차로 하이패스: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·설치하는 것으로서, 원칙상 본선과 같은 속도로 통과 가능

□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(3m~3.5m)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하여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.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,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○ 이에 국토교통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, 지·정체 개선,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,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·강릉 요금소 등 8개소에서 작년부턴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

□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으며,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(주)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(ITS)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인천공항에서 평창·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평창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졌다.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※ 참고사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이중현 사무관(☎ 044-201-43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